

# 나누고 보살피고 “우리는 ‘寒가위’ 몰라요”

## 불교계 한가위 자비실천 앞장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불경기로 ‘한(寒)가위’라 불리는 때, 호남지역 사찰 및 교계단체들이 지역민간 상생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경을 연출해 주변을 훈훈하게 한다.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관장 무경)은 9월 9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지역 내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20kg 햅쌀 45포대를 함께 나누었다. 전주 금산사 서원노인복지관도 같은 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인근 보문유치원을 방문해 함께 송편도 만들며 세대간 차이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하)는 9월 10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송편빚기와 쌀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매주 무각사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후원기금으로 쌀과 속웃 및 생필품을 마련해 서구지역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족 200세대에 전달했다. 또 부처님전에 올렸던 공

양미로 빛은 송편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광란 무각사 기획국장은 “치솟는 물가와 어지러운 사회현실 속에 삶이 고단한 때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해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입)는 9월 11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쌀을 지원하는 기념식을 갖고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8월 초부터 지역 불교사찰 등을 대상으로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9개 사찰(개인 참여 4명) 등이 1000kg을 후원해 모인 쌀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된 23개단체의 활동가와 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등에게 전해졌다.

법입 스님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자비의 쌀에 담았다. 자비의 쌀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주지 도제)는 9월 7일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와 함께 소아암 백혈병 환아 돕기 가을 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바자회(나눔장터)를 비롯해 심산 스님(부산홍법사 주지) 법문, 소설가 정찬주씨와 독자의 만남, 생명나눔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 운영중 사무국장은 “사찰과 불교사회단체가 밀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동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백혈병 환아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9월 7일 광주 철단 쌍암공원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걷기대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검진을 목표로 실시된 행사에는 5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와 시민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9월 7일 광주 철단 쌍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건강 걷기대회(위)와 같은 날 광주 원각사에서 열린 소아암 백혈병 환아 돕기 바자회.

### 불국토를 찾아서 익산 관음사 이리불교대학 가름빈가합창단

## 인연법 공부 ‘합창삼매’로 회향

가는 여름이 아쉬운 듯 따가운 햇살이 반갑지만은 않은 9월 어느 날 오후, 익산 불교 중심이라 불리는 관음사 2층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고운 화음이 흘러나와 도량 전체를 감싼다.

1991년 익산 관음사 주지 일화 스님과 작곡가이자 불음보급회 회장인 조영근 선생, 그리고 가름빈가합창단 초대회장을 역임한 최병설 거사,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 거사 등 지역 내 여러 불자들의 성원 속에 이리불교대학 가름빈가합창단(단장 김진수, 회장 문순복, 이하 가름빈가합창단)이 창단했다. 가름빈가합창단은 매주 일요법회와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행사, 지역대내외 행사 등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240쪽에 달하는 <생활속의 찬불가>라는 제목의 찬불가집 발행도 가름빈가합창단의 자랑이다. 익산 불교음악회를 개최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찬불가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가름빈가합창단의 음성공양은 유명하다.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름빈가합창단은 음성공양으로 나서 도왔다. 서해 위도 페리호 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을 때는 직접 거리공연을 나서 페리호 유족들이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이때 모아진 성금을 유가족에 전달했다. 지역에 극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농촌지역 마을에 우물을 파 보시했다.

“합창단은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합 없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지요” 문순복 회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름빈가합창단의 가장 큰

고운 목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이재열 지휘자 지도에 따라 매주



## ‘음성공양’ 보시행, 가름빈가의 원력

화요일이면 실전같은 연습을 한다. 음성공양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하나가 성대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 자체다.

가름빈가합창단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익산지역 합창단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역 내 크고 작은 사찰행사엔 찾지 않은 곳이 없다. 사찰 음성공양 뿐 아니라 소적새 마을, 양로원같은 불우시설을 돌보며 위문공연도 하고 봉축기간 중에는 찬불가 발표도 하는 등 수많은 활동은 가름빈가합창단의 일상사다.

지역내 위치한 제7공수 여단, 9군단 등 군법당을 순회하며 불자 장병들에게 찬불가 지도도 한다. 거의 모든 찬불가를 수록한

자랑거리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과 단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에서 보이는 화합된 모습이다.

가름빈가합창단 지도법사 덕림 스님은 “자칫 무료할 수 있는 법회 분위기를 순간 환하게 빛내 주는 데에는 합창단 공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수 단장은 “가름빈가합창단이 올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찬불가 보급은 물론 봉사활동 등 익산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합창단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전주, 군산, 익산 등 이웃 도시의 불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불가를 부를 수 있는 불교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경찰이 국민통합 앞장서달라”

### 원행 스님 무주경찰서 워크숍서 법문



9월 4일 무주경찰서에서 원행 스님이 법문을 중다.

위한 워크숍’에서 관내 경찰가속 100여명에게 법문을 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최근 종교편향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공직자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사적인 감정은 없다”며, “경찰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해 구슬을 타파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관으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이진현 경무과장, 양해국 수사과장 등 무주 경찰서 관내 직원 140명등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처님께 ‘보은염’ 공양

### 제1회 선운문화축제 9월 28일

가을이 무르익는 9월 27~28일 고창 선운사 경내 일원에서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도솔천, 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선운문화축제는 승무와 법교 공연 등으로 야단법석을 이루게 된다.

행사는 부처님께 소금 공양을 올리는 ‘보은염(報恩鹽) 공양 의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 다례중의 하나인 규방다례(閔房茶禮) 시연, ‘산사의 하루’ 영상공연, 영산재 등이 준비됐다.

행사기간중 선운사 박물관에서는 임희진 작가의 ‘생명의 만다라’ 초대전이 11월까지 2달간 전시되고, 선운사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도 열린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는 검단 선사

가 창건한 이래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선운문화축제도 사찰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염 공양은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검단 선사가 지역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민생이 해결되자, 검단마을 사람들이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의미로 매년 불가를 선운사에 소금을 보시하는 전통이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자엽 등 소금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통은 이어져 지역 향토 기업인 삼양사에서 매년 불가음료 선운사에 소금을 보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자비신행회 자비밥상

광주광역시 광장 인근지역 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상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원각사와 함께 9월 11일 광주공원에서 독거노인 및 노숙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식 급식차를 이용해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남계마을, 빛고을 연동축제, 용연마을 등 봉사에 이어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원각사 봉사단 15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찾아가는 따뜻한 밥상’은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가 해결되자, 검단마을 사람들이 불은(佛恩)에 보답하는 의미로 매년 불가를 선운사에 소금을 보시하는 전통이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자엽 등 소금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통은 이어져 지역 향토 기업인 삼양사에서 매년 불가음료 선운사에 소금을 보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9월 24일 수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 특기 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자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 百超律歷學堂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조영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